

폐목 활용 원목 장난감 제작 공모 시상식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원목장난감 크리에이터 공모 심사 통해 총 7개 작품 수상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주관한 '원목장난감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7일 익산의 블루유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도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올해 의제 공모에 총 93건이 참여, 최종 15건의 실행 의제가 선정됐다.

이중 '원목장난감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최종 15개 실행 의제 중 하나로, 제작 후 남은 폐목(자투리목)을 활용해 원목 장난감을 만들고 이를 통해 2차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사각사각에서 제안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진행된 자투리목을 활용한 장난감 제작 공모전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감 창출을 위한 실물 제작 장난감 부분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부분으로 진행됐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출품작이 접수, 심사를 통해 총 7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모전 상금은 총 300만원으로, 1등은 전주대학교 총장상으로 '스네이크 큐브'가, 2등인 '나는야 멋쟁이 작가'와 '원목 기차' 등 2팀이 수상했고, 3등은 '오르락 토끼', '피셔베베', '이겨내는 소녀상' 등 총 3팀이 차지했다. 특별상으로는 아이디어 부분의 '원소주기울표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주관한 '원목장난감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7일 익산의 블루유에서 열렸다.

학습 블록'이 수상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 및 아이디어는 추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 연구 개발을 통해 폐목(자투리목)을 활용해 실물 장난감으로 제작, (유)사각사각이 2023년 익산에 개소할 원목 장난감 대여소(놀이터) 및 지역의 유아 관련 기관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육아가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사각사각의 권순표 대표는 "전북지역문

제해결플랫폼 의제 실행인 공모전 및 목공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가치 실현의 '가능성'과 '발전성'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더욱 완벽한 준비를 통해 제2회 '원목장난감 크리에이터 공모전'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 노력과 개발을 통해 폐목(자투리목)을 활용한 원목 장난감 개발과 제작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꿈을 선물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주최하고 장수문화원이 주관하는 '2022년 장수문화원의 날 및 문화예술인의 날'이 지난 18일 장수문화원내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장수문화원의 날 · 문화예술인의 날' 개최

문화예술 발전 공헌 장수군수상 수여 · 공연 · 작품전 등 펼쳐져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주최하고 장수문화원이 주관하는 '2022년 장수문화원의 날 및 문화예술인의 날'이 지난 18일 장수문화원내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나종우 전북문화원연합회장, 김길수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 겸 진주문화원장, 각 시군 문화원장 및 지역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빛나는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서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 지도로 장수군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문권철 음악감독에게 장수군수상이 수여됐다. 이어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임정택에게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이, 장수문화원 이순창 이사에게 전북문화원연합회장상이,

장수문화원 김정길 회원에게는 장수문화원 장상이 수여됐다.

행사는 타악티안, 문화학교강좌 김물무용단·시극단, 진주문화원·원주문화원 초청공연뿐만 아니라 문화학교 강좌 및 문화예술진흥사업 작품전도 다채롭게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병태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가 진주문화원을 비롯한 도내 시군 문화원과의 활발한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 지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장수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에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지역공생 문화창달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수=고관호 기자

'전주 시장 사람들 이야기 화양연화' 무용과 만났다

전주문화재단 공연예술지원사업 선정 '두(頭:Do)댄스 무용단' 창작 춤극 첫선

전주문화재단의 2022 공연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두(頭:Do)댄스 무용단의 '전주 시장 사람들 이야기 화양연화'가 지난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화양연화'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고된 노동의 땀을 흘리면서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시장상인들의 인생을 통해 이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전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한 편의 창작 춤극으로 풀어냈다.

특히 이번 공연의 주요 배경은 조선 시대에 개설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남부시장은 물론,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등 전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온 전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시장사람들의 이야기와 무용이라는 장르가 만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두(頭:Do)댄스 무용단의 홍화영 대표는 "전주에 있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 과정을 담고자 했

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전주 전통시장의 추억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춤극으로 선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은 "전주문화재단의 공연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소재,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전주 시장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창작 춤극으로 탄생한 이번 공연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됐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서희정 개인전 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서희정 개인전 '들꽃... 그 자리에 꽃은 또 핀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희정 작가의 18번째 개인전으로, 계절마다 찾아오는 들꽃을 화폭에 담아

'들꽃 이야기', '꽃이야기', '맨드라미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바쁜 일상 중 잠시나마 지니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들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강렬한 색감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서 작가는 전라북도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전국 은고를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군산 초대전과 그룹전 300여회 개최 등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다.

서 작가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들꽃의 소소한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잔잔한 들꽃들의 향기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관근 기자

제21회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올해 창단 21주년을 맞이하는 김제시립합창단(단장 김광수 부시장)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월 2일 오후 7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평안과 위로를 이라는 부제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총 14곡을 4부로 혼성합창, 여성합창, 남성합창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성악가 Sop.오현정, Alto.김미지, Ten.김진우, Bass.김종대의 노래를 선사한다.

Misa Criolla(미사 크리올라 Ariel Ramirez 작곡 중 키리에(Kyrie), 글로리아(Gloria), 크레도(Credo), 상투스(Sanctus), 아누스 데이(Agnus Dei)를 순차 진행으로 평이 한 선율, 반음계를 배제한 편안한 전음계 화성, 그리고 리듬을 더욱 강조하는 타악기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하여, 오르프의 음악 언어를 아주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배부하며 전석 무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햇살담은
11년 이상된 씨간장을
햇간장에 더하는 덧장 방식을 계승한
숙성공법으로 만듭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시간이. 빛은. 맛의 품격.

11년 이상된 씨간장을
햇간장에 더하는 덧장 방식을 계승한
숙성공법으로 만듭니다